

산림청, 사찰림 실태조사 확대

체계적 보호 및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전통 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헥타르(ha) 규모로, 사찰 1곳당 평균 면적이 155ha에 달해 일반 개인 산주의 평균(약 1.9ha)보다 약 82배 넓은 대규모 집단 산림이다.

오랜 기간 이어진 보호 노력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기후 위기 시대 핵심 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20개 사찰림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조사 규모를 확대해 전년보다 늘어난 10개소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사찰림의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등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사찰림은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병해충 방제와 산불 예방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량 소나무 군락지 등에 대한 정밀 예



▲산림청 제공

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사찰림은 사유지이면서도 천 년을 이어온 공공 자산"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전지불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보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 '제로' 달성

37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종료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9일부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37일간 운영됐다.

산림청은 올해 특별대책기간 동안 기동 단속 인력을 전년(2,059명) 대비 약 7배 늘린 1만 4,000명 수준으로 확대 투입해 산불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또한 적시적인 위기경보 발령과 산불 진화 헬기 전진 배치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소방청은 산불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종 진화를 지원하고,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 인접 지역 화재 139건을 진화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차단했다.

기상청은 산림청 국가산불대응상황팀에 기상 분석관을 파견해 산불 발생 지역의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함께 교육·홍보를 병행하며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이 같은 범정부 대응 결과, 최

근 10년 같은 기간 연평균 2건 발생하던 대형산불은 올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은 총 98건으로 최근 10년 평균(168건) 대비 42% 감소했으며, 피해 면적은 24헥타르(ha)로 최근 10년 평균(영남지역 대형산불 제외 1,148ha)의 2.1%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특별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불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누적 강수량이 적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국립산림과학원, 밀원수림 확대 조림 정책 추진

아까시나무 보다 꿀 생산성이 우수한 24수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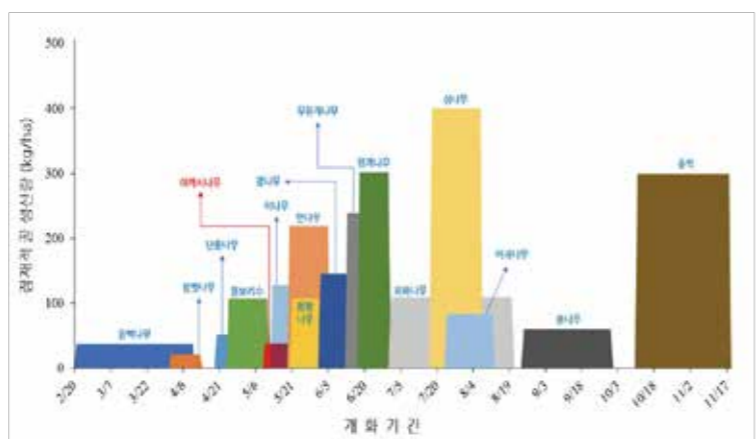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봉업계를 지원하고, 산림의 건강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 밀원수 24수종을 발굴하여 산림청의 밀원수 확대 조성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산림녹화를 위해 심었던 아까시나무가 최근 기후변화, 노령화 등으로 점차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양봉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개화시기가 다양하면서 아까시나무 보다 꿀 생산량

이 우수한 밀원수를 발굴하였다. 나무당 꽃수, 꽃꿀량, 성장특

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잠재적 꿀 생산량을 추정해 결과,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쉬나무, 헛개나무는 아까시나무보다 7~10배나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진이 새롭게 발굴한 무환자나무, 송악, 뽕나무 등도 ha당 꿀 생산량이 아까시나무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밀원자원연구팀은 지난달 31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근거를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함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 중이다.

김용관 원장은 "산불피해지, 내화수림, 탄소흡수림 등 다양한 산림에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장 점검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 위한 선제적 대응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지난 21일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방제 품질향상 도모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수종전환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을 산림에서 모두 제거한 후 소나무를 제외하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밀원수, 경관수, 경제수 등 다양한 수종을 심어 새로운 숲으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제사업 방법이다.

또한 최근 산림사업장에서 안

전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산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재선충병 방제 품질향상 도모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산림조합중앙회·금융감독원 현장간담회 개최

산림조합중앙회는 4.20(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법' 및 은행권 도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준법제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안한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준법제도를 표준화하고 은행권 수준의 포상금 한도를 마련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중앙회 주요 부서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고객 휴면예금 관리체계 강화 ▲준법제도 운영기준 마련 ▲전국 농지대출 실태 중간 점검 ▲주요정책 청취 및 기관 건의사항 등이 다뤄졌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권리보호 및 준법제도 마련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전국 산림조합의 조합원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선제적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점차 고도화 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회원조합 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진아 기자
mical0210@naver.com